

사랑도 명예도 '반쪽'...역사 왜곡... '오월 광주'는 아직도 아프다



기념식선 합창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이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주요인사, 국회의원, 유공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구묘역선 제창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구 묘역에서 5월 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광주시의원들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참배객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대회를 열고 있다. 5·18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이날 국가보훈처의 제창 거부에 반발, 별도로 5·18 33주년 기념식을 치렀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與野 정치인들이 말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5·18 역사왜곡

황우여 대표 "5·18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시킨 역사적인 사건"
 김한길 대표 "박대통령 '... 행진곡' 불렀다면 대통합 좋은 기회"
 안철수 의원 "국가가 무리해서 노래 바꾸려는 시도 부적절하다"
 김현철(YS 아들) "5·18 왜곡, 일본 역사 왜곡과 뭐가 다르냐"

18일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을 찾은 여야 정치인 대부분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5·18 왜곡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5·18 정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박 대통령께서 (기념식에서) 일어나 함께 해주신 만큼 민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노래를 따라부르지는 않았지만, 일어서서 노래를 경청한 것만으로도 공식 곡이나 다름없다"고 전제한 뒤 "유가족과 광주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 5·18 묘지 민주묘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추모 리본 달기' 행사에도 참석해 노란 리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곡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라고 썼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새 기념곡을 지정하려 하는 것은 공무원적인 발상"이라며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식 기념곡 지정을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5·18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기념식에 와하신 것은 고맙고 잘한 일이지만 온전한 기념식이 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박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면 대통합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5월 광주 정신을 오염, 왜곡하려는 시도에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걸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홍어'로 패러디한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을 방종한 일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만큼 광주시와 연대해 5·18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곡으로 정식 제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기념식 전날인 17일 국립 5·18 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광주민중항쟁의 주체곡임은 상식이고, 그래서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제창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밝힌 뒤 노숙 농성을 벌였으며, 기념식에는 불참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 대표는 "벌어진 노래가 있는데 공식 기념곡을 만든다는 것은 알뜰한 수"라며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무소속) 의원은 "국민 사이에서 문화와 전통으로 자리 잡은 노래를 국가에서 무리해서 바꾸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부 종편채널의 5·18 왜곡 보도에 대해 "일본이 과거 전범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제와서 제창이니, 함참이니 하는 것은 광주시민 뿐 아니라 유가족 모두에게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5·18 성적표' 매겨보니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국에서의 여야 성적표가 신빙성 있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의 독자 세력화 행보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다.

우선, 민주당은 '33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계기로 '광주 혁신 선언'을 제시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광주 민심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광주 혁신선언'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데다 과감한 공천 개혁 등 폭발성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의 단초도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논총도 만만치 않았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국가보훈처의 5·18

청와대 - 국민대통합 계기 마련 실패
 새누리 - 호남에 대한 진정성 부족해
 민주당 - 광주혁신 선언 기대 못미쳐
 안철수 - 독자 세력화 행보 주목 받아

기념곡 제작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5·18 기념식 참여도 전체 의원의 절반 내외에 그치는 등 역량 결집에 실패, 민주당에 냉담한 광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서 자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행보를 보여야 했다"며 "5·18 정국

에서 민주당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등 여권에 대한 평가도 그리 높지 않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정식 기념곡으로 정해야 한다는 당내의 잇단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눈치를 살핀다는 지적과 함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이 아직도 미진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청와대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 이명박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국민대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지정하면서 국민대통합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현 정무수석 등 호남 인맥이 청와대 내부의 보수 인맥의 벽에 막혀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5·18 기념곡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안철수 의원은 광주에서 폭 넓은 행보를 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이명주기자 tuim@

거부당하고 쫓겨나고... 보훈처 '찬밥 신세'

국가보훈처가 잇단 불통 행보로 찬밥 신세가 됐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제창하게 해달라는 지역 사회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5·18 33주년 기념일을 앞둔 16일 오후에야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노래가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 곡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목을 쥐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와 5월 관련단체 등 310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추진 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린 지난 17

일 광주시청에서는 광주지방보훈청 직원들이 물레 회의장을 찾았다가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회의장 구석에 앉아 있는 광주보훈청 직원 2명을 목격한 뒤 "여기서 이러면 되느냐.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보훈처 관계자들은 앞서 지난 15일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회의장에 동향을 파악하러 갔다가 쫓겨나 바 있다. 보훈처는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할 공연 단체를 구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 광주 시립합창단이 공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명주기자 galee@kwangju.co.kr

빛의만경

- 김중두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1주년 기념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기원

시민한마음 걷기대회



행복한 창조도시의 완성을 위해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은 창립 1주년 기념행사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유치'가 꼭 이루어지도록 15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는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길무 시민걷기대회 준비위원장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상임의장
 (사)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대외홍보위원장

시민걷기대회 준비부위원장: 김상덕, 김시권, 김재두, 이길행

11시부터 13시20분까지 현장접수 및 배번호 배포와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등 식전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바랍니다.

일 시: 2013년 6월 22일 (토)
 현장접수: 11:00~13:20 (걷기출발 오후2시)
 장 소: 광주상무시민공원
 참가비: 무료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및 간식을 제공해드립니다.
 참가신청: 인터넷 접수 www.ngtv.tv

※ 기업,사회단체 홍보·봉사 부스 문의: 062-531-0857
 학생 자원봉사(봉사활동시간 부여) ngtv@ngtv.tv

주최 > ACCMA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후원 > 광주광역시, 광주일보
 (사)광주영상미디어클럽
 (사)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광주로!